

# 광주·전남서 검거 조폭 중 99% '재범'

## 21~50범 최다...폭력 범죄가 가장 많아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전남에서 검거된 동네조폭 1827명 중 98.6%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검거된 동네조폭 1827명 중 98.6%(1802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초범은 1.3%(25명)인 반면 21~50범이 전체 1827명 중 557명

초범은 25명, 1~5범 286명, 6~10범 327명, 11~20범 547명, 21~50범 557명, 51범 이상은 85명이었다.

연령별로는 20세 미만 23명, 20대 125명, 30대 223명, 40대 586명, 50대 634명, 60세이상 236명으로 50대가 가장 많았다.

범죄유형별로는 업무방해 481명, 갈취 111명, 폭력 1110명, 협박

107명, 재물손괴 246명, 무전취식 377명, 기타 167명이었다.

소 의원은 "동네조폭 척결이야말로 민생안전의 기본을 세우는 것"이라며 "동네조폭의 대부분이 11범 이상의 상습범인 만큼 경찰의 집중적인 관리 및 근절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1

## 진도군, '해양쓰레기 일부러 투기' 사과

진도군이 26일 국제 연안 정화의 날 행사에서 해양 쓰레기를 일부러 버린 것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사 장소인 가계해변은 사전에 청소를 실시해 깨끗했지만 참석자 600여 명이 정화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어 페스티코프 등 해양 쓰레기를 이곳으로 옮겨와 정화활동을 하도록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수거된 쓰레기는 폐기물 보관 야적장에 100% 수거 처리 완료해 다시 바다로 유입돼 오염되는 2차 피해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양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제 체험해 보는 취지로 한 행위가 물의를 일으키게 된 점을 사과한다"며 "향후 유사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군은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와 관련 매주 5회씩, 9명이 참여(연 인원 2610명)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앞으로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 20일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제19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의 쓰레기 수거 퍼포먼스를 위해 전날 1톤 트럭 6대 분량의 쓰레기를 실고 와 행사장 해변에 펼쳐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샀다.



**테러로 건물이 붕괴된다면** 제 100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를 일주일여 앞둔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재난대응 안전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번 훈련은 개회식이 열리는 올림픽주경기장에서 테러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고 경기장이 붕괴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 '돼지열병' 차량 이동중지 명령 어긴 무안영농법인 '고발'

### 17~18일 돼지분뇨 액비차량 운행...도내 첫 적발

전남에서 돼지 사육수가 가장 많은 무안에서 축산관련 차량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동중지 명령을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돼 경찰에 고발됐다.

26일 전남도와 무안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에서 국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이후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남도는 축산관련 차량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했다.

하지만 무안군 소재 무안한돈영농조합법인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17일부터 이틀간 돼지 액비살포 차량 2대를 무안군 운남면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에서 현

경면의 농경지로 이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을 이 차량들에 부착된 GPS 단말기를 통해 경기도 김포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하고 지난 20일 전남도에 위반내용을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도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안군에 조치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무안군은 지난 23일 해당 영농법인을 경찰에 고발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하면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26일까지 국내 7곳에서 확진 판정이 이어지

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 도내에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 사례는 이번이 첫 적발이다.

전남도에는 580농가에서 돼지 110만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무안군은 76농가에서 22만두를 사육, 가축 수에서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돼지를 키우고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이번 위반한 영농법인에서는 운전기사들이 이동 중지 명령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으나 관련 사항이 엄중해 즉각 고발조치 했다"며 "향후 방역활동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각종 지침에 대해 농가들에게 다시 한번 고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 기자

## 대법원 표석 '붉은 낙서' 60대 횡설수설

서울 서초경찰서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표석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한 혐의로 A씨(64)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6일 아침 7시쯤 대법원 정문에 있는 '대법원' 글씨가 세로로 작성돼 있는 대리석 표석에 빨간색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하다가 청사 보안요원에게 곧바로 붙잡혔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제대로 대답하지 않고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범행 전 동선과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정문 표석의 빨간 낙서는 직원 등에 의해 제거된 상태다. 그러나 붉은 색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서 범행 당시 정황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 여성무속인 폭행살해 50대 구속송치

여성무속인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50대 남성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전남(25일) 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당초 폭행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검토했던 경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새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의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무속인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지방의 한 모텔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와 B씨는 동거하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일체를 모두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0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1일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소방차 5분 안에 오는지 보겠다" 불지른 60대

"소방차가 5분 안에 오는지 보겠다"며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60대가 체포됐다.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1시37분쯤 119상황실에 "불을 지르고 한다. 5분안에 오는지 보지"는 전화가 걸려왔다.

대구 서구 중리동 자신의 집에서 전화를 건 A씨(61)는 집에 불을 지른 뒤 인근 골목으로 달아났다.

불은 소방관 40여명이 출동해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화재로 거실과 방 등 집 내부가 불타 39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1시간여 만에 검거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 "소방차가 5분 안에 오는지 보려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방화 경위를 조사 후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찰서 간부 술집 종업원 성추행 혐의 피소

충남 서산경찰서 간부가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대기발령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서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서산경찰서 간부 A씨가 지난 추석 명절 전 지인 3~4명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여직원 B씨의 어깨 등을 만져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은 B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A씨를 즉시 대기발령하고 피해자의 진술과 업소 내 CCTV 등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 중"이라며 "조사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1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